



월드컵 결산

<2> 아시아·아프리카 몰락

유럽·남미 압박축구에 무기력

애플 축구 '우물안 개구리' 빨리 벗어나야 '검은대륙' 경험 부족... 초반탈락 아쉬움

지난 달 28일(이하 한국시간)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브라질과 가나의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16강전. 전방 5분 호나우두가 헛다리질기로 가나 수문장 리처드 킹스턴을 완전히 따돌리고...

로 격과한 게 거의 유일한 이변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의 몰락은 참담했다. 한국이 유일하게 1승을 올리고 프랑스와 1-1로 비겼을 뿐 아시아를 대표한 본선 출전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약속이나 한듯 나란히 1무2패를 기록해 조 최하위로 쓸쓸히 짐을 싣다.

했지만 다소 충격적이었다. 아프리카는 최종예선 결과 전통의 강호 카메룬, 나이지리아, 세네갈과 차기 월드컵 개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탈락하면서 튀니지를 제외한 네 나라가 첫 출전국으로 채워졌다. 검은 대륙은 신데렐라의 꿈을 꾀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프리카 축구의 몰락은 큰 대회에서 실력보다 크게 작용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탈리아 리피 감독은?

24년간 국내에서만 활동한 '토종 감독'

'아이스맨' 마르첼로 리피(58). 2004년부터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을 이끌 어온 리피 감독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출신으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단 한번도 해외에서 지도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1982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삼프도리아 유스팀의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24년 간 오로지 이탈리아 축구계에서만 활동했다. 리피는 이탈리아 프로무대에서 현역으로 뛰었지만 국제 무대에는 이탈리아 B대표팀 선수로 두 차례 출전했을 뿐 이렇다 할 성적표를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의 달랐다. 시에나, 체세나, 피스토이예세 등 이유 구단을 돌아다

닌 그는 1993년 나폴리 사령탑이 되면서 화려한 날개를 폈다. 디에고 마라도나와 함께 유럽축구연맹(UEFA)컵을 제패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리피는 여러 명문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1994년 이탈리아 3대 명문으로 꼽히는 유벤투스 사령탑이 된 뒤 부임 첫 시즌에 세리에A 우승을 끌어내며 '명장으로서 기를'을 잡기 시작했다. 리피는 세리에A 감독 가운데 적임자를 뽑는 이탈리아의 독특한 대표팀 사령탑 선임 방식에 의해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다혈질 감독으로 유명했던 조바니 트라파토니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아 아주리클럽의 선장이 됐다. 그리고 2004년 10월 슬로베니아전 패배 이후 이날 결승까지 25경기 무패 행진(15승 10무)을 이끌며 대망의 월드컵을 들어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마테라치 '지옥에서 천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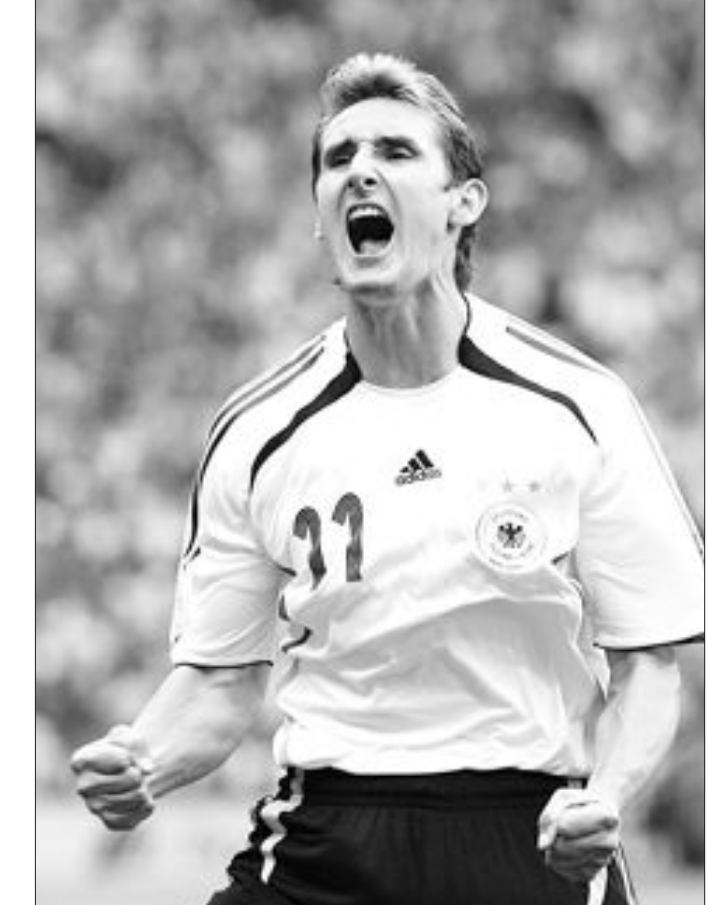
'지옥과 천당 양쪽을 전부 다녀왔다' 10일 오전(한국시간) 2006 독일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한 이탈리아의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33·인터밀란)는 이날 경기를 누구보다 극적으로 치러냈다. 초반 프랑스에 페널티킥을 내줘 '역적'으로 몰릴 뻔하다가 곧 이어 자신이 직접 1-1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연장 120분 혈투에서는 이탈리아 '빛장수비'의 한복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적절히 막아낸 뒤 승부차기에서도 키커로 나서 5-3 승리를 이끌었다.

주장 파비오 칸나바로와 함께 중앙수비수로 출전한 마테라치는 전반 6분 페널티지역 왼쪽을 돌아다니던 상대 미드필더 플로랑 말루다를 수비하다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를 전반 7분 지네딘 지단의 침착하게 성공시켜 승부의 추는 일제갑자 프랑스로 기울어졌다. 마테라치로서는 패배 원인을 제공한 선수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한 셈이었지만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마테라치는 전반 19분 안드레아 피롤로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칠

PK 내줘 선제골 허용 '주범' 동점골 이어 승부차기로 만회 당시 공격에 가담했고 예리하게 휘어져 들어오는 볼을 향해 힘껏 뛰어올라 헤딩슛으로 골문을 갈았다. 직접 동점골을 만들어낸 마테라치는 부담을 모두 털어버린 듯 이후 활발 날았고 연장 120분의 치열한 접전에서 티에리 앙리를 쫓공 무으며 프랑스의 공세를 실점 없이 막아냈다. '롤릿게임' 승부차기에서도 두 번째 키커로 나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켜 이탈리아가 5-3으로 이기는데 주역이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클로제 5골 '득점왕'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개인통산 5골을 터트린 독일 축구 대표팀 미로슬라프 클로제(28·브레멘·사진)가 득점왕을 확정지었다. 클로제는 10일(한국시간)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펼쳐진 2006독일월드컵 이탈리아-프랑스 결승에서 득점왕 경쟁에 나선던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3골)와 루카 토니(2골)가 골사냥에 실패하면서 골득수를 품에 안았다. 클로제는 지난달 10일 독일월드컵 개막전으로 치러진 코스타리카전에서 자신의 28번째 생일을 자축하는 2골을 뽑아내면서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아깝게 호나우두에게 내줬던 득점왕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에콰도르와 치른 A조 조별리그에서도 '깜짝' 2골을 폭발시킨 클로제는 아르헨티나와 펼친 8강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리면서 독일의 4강 진출의 고두보를 쌓았다. 하지만 클로제는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과 잇달아 치른 4강전과 3-4위전에서 골 맛을 보지 못해 득점왕 타이틀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결승에 오른 프랑스의 골키퍼 앙리와 지단을 비롯한 이탈리아 골키퍼 루카 토니의 득점감각이 살아나면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한 골씩밖에 넣지 못하는 통에 클로제는 안정적으로 득점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이종범이어 한기주까지 2군으로 강등

이러다 1·2군 맞바뀔라?

"이러다 1, 2군 선수명단 바뀔라" 지난주 이종범에 이어 '퍼터팬' 한기주(19·KIA)마저 시즌 개막 이후 처음으로 2군으로 강등됐다. KIA는 10일 "최근 투구 밸런스와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한기주를 2군으로 내려보냈다" 고 밝혔다. KIA는 대신 지난달 7일 우측 소흉근(어깨에서 가슴으로 가는 근육)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된 김진우(23)를 1군에 등록할 예정이다. 역대 신인 최고 계약금(10억)을 받고 올 시즌 프로에 데뷔한 한기주는 사실상 1군 무대 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주는 올 시즌 1군에서 15경기에 등판해 4승9패, 평균 자책점 4.63으로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지난 6일 두산전에 선발등판해 0.

투구폼·컨디션 난조 원인 부상 김진우 1군 등록 예정 금주 LG·두산 상대 승수쌍기 2이닝 동안 7타자를 상대로 안타 5개를 맞고 4실점(3자책)한 뒤 강판하는 등 최근 3연패의 부진을 겪었다. 한기주는 시속 150km 안팎의 빠른 볼을 갖고 있지만 변화구의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주자가 누상에 있을 때 자신의 공을 제대로 뿌리기가 못하고 쉽게 흔들린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이번 한기주의 강등으로 KIA 2군은 이

종범, 심재학, 강철민, 정원 등 시즌 주전급 선수들의 집합소가 됐다. 이는 곧 팀 전력에도 상당한 누수가 따른다는 의미가 된다. 올 시즌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KIA는 이번주 LG(11~13일·광주)와 두산(14~16일·잠실)을 상대로 6연전을 치른다. 현재 단독 5위를 기록중인 KIA는 4위 두산과 4게임차, 선두 삼성과는 10.5게임차로 벌어져 있다. 따라서 '폼제' LG와 4위 경쟁상대인 두산과 이번주 6연전을 그 어느 경기보다도 중요한 일전이다. 지난 9일 현대전에서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딛고 파이팅 넘긴 플레이로 11회 연장 끝에 승리한 KIA의 투혼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9일 영국에서 열린 윌블던테니스 남자 단식결승에서 나파엘 나달을 꺾고 우승한 로저 페더러가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니스 황제' 페더러 윌블던 4연패 위업

'강호' 나달 3-1 제압 메이저 8번째 우승 '테니스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가 총상금 183억원이 걸린 최고관위의 윌블던테니스 남자 단식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페더러는 9일 밤(한국시간) 영국 올 잉글랜드클럽에서 벌어진 결승에서 클레이코트 60연승 신화의 주인공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을 3-1(6-0 7-6(7-5) 6-7(2-7) 6-3)로 몰리치고 잔디코트 48연승(윌블던코트 28연승)과 함께 개인 통산 8번째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우승상금은 11억5천500만원(65만5천파운드). 페더러는 이전 대회인 프랑스오픈 결

승 포함, 올해 자신에게 4번이나 수모를 안긴 나달에게 멋지게 설욕하며 세계랭킹 1위의 자존심을 지켰다. 4연패는 지난 2000년 당대 최고 선수 라던 피트 샘프라스(미국) 이후 6년만에 나온 대기록이다. 역대로는 7번째이고 프로선수들의 메이저대회 참가가 허용된 오픈시대 이후로는 바운 보리(스웨덴), 샘프라스에 이어 세 번째다. 샘프라스는 1993년~1995년 3연패를 비롯, 이 대회 남자 단식을 7번이나 제패해 영국의 W.C 렌쇼와 더불어 최다 우승자로 기록돼 있다. 한편 이날 막을 내린 여자 복식에서는 올 호주오픈 우승자인 중국의 쟡지(37위)-양지(79위)조가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며 아시안 파워를 과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향남 시즌 5승

미국 프로야구 마이내리거스에서 활약 중인 '풍운아' 최향남(35)이 깔끔한 투구로 시즌 5승째를 올렸다. 클리블랜드 산하 트리플A 버펄로 바이슨스 소속인 최향남은 10일(이하 한국시간) 뉴욕주 버펄로 던 타이어 파크에서 열린 포터키 레드삭스(보스턴 산하)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으로 팀의 7-1 승리를 이끌었다. 삼진 5개를 잡았고 볼넷은 1개를 내줬다. 최향남은 시즌 전반기를 5승5패로 마치며 평균 자책점을 2.69(종전 2.88)까지 끌어내렸다. 1회를 볼넷 1개로 잘 넘긴 최향남은 2회에 연속 안타 2개로 맞은 무사 1, 2루 위기에서 상대 타자를 3루수 앞 병살타로 처리한 뒤 다음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안정을 찾은 최향남은 3회와 4회를 안타 1개씩 내주며 무실점으로 막았고 5회를 삼자 범퇴로 완벽하게 마무리한 뒤 팀이 7-0으로 크게 앞선 6회 초 등판에서 구원투수로 교체됐다.

이멜만 생애 첫 우승 최경주 공동 30위

PGA 시알리스웨스턴오픈 최종 트레버 이멜만(남아공·사진)이 미 코프 프로 골프(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멜만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일리노이주 레민트의 코그힐골프장(파71·7천326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시알리스웨스턴오픈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멜만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2인자' 비제이 싱(피지), 짐 퓨릭(미국) 등 강호들을 따돌리고 PGA 투어 첫 우승을 따내 기쁨이 더욱 컸다.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보기 3개, 버디 2개로 1타를 잃어 3언더파 281타, 공동 30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1일(화) ▲메이저리그 올스타 홈런 Derby(08 : 50·Xports) ▲제28회 대붕기교야구대회(14 : 3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요코하마>(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롯데-한화>(19 : 00·MBC ESPN), <현대-두산>(18 : 30·KBS SKY SPORTS)